제13강 숭고의 분석론

(1교시)

◆ 숭고의 정의

▲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

■■ 수학적 숭고: 대상의 양적인 크기 -이론적 정조 ■■ 분량-외연량 (겉으로 보이는 양)
■■ ■■ 성질-내포량 (밀도)
■■
■■ 역학적 숭고: 대상의 힘의 크기 -실천적 정조 ■■ 관계
■■ 양상

▲ 숭고의 정의

- 숭고의 어의
  hypsous (희랍어); subliminus (라틴어) = 경사지게 위로 향하는 것 ↗
  Erhabne (독일어) ---erhaben 고양하다

- 칸트가 내린 숭고의 정의
  : 단적으로 큰 것
  (=절대적으로)
  그것과 비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작은 것
  일체의 비교를 넘어서는 큰 것

  ⇒ 논리적·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크기 평가의 태도

(1) 논리적·수학적 크기 평가 - '절대적으로 큰 것'을 말할 수 없다.

(2) 감성적 크기 평가 - '숭고'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월등히 초과하는 느낌을 받을 때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 상상력의 크기 평가 방식

(1) 포착 :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며 보는 방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진행의 무한성'은 성립해도
대상의 크기의 무한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포괄 : 전체를 한 번에 보는 방식

■■ 논리적 포괄

■■ 감성적 포괄: '무한성' 규정이 가능 ⇒ 수학적 숭고가 성립한다.

예) 피라미드, 성 베드로 성당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교시)

◆ 숭고와 이성

▲ 숭고의 계기

(1) 수학적 숭고의 계기
: 상상력이 대상을 포괄(감성적 포괄)하는데 좌절하는 상황

(2) 역학적 숭고의 계기
: 자기보존 능력(감성능력)이 좌절하는 상황
예) 깎아지른 낭떠러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 숭고를 느낄 때의 감정

수학적 숭고: 불쾌 ----------→ 쾌 이성능력 역학적 숭고: 공포 ----------→ 안도

- 감성능력 일체를 능가하는 크기, 무한한 전체와 만났을 때
: 감성능력의 무능함을 깨닫는다.
→ 무한한 전체(총체성)을 생각하는 이성능력을 발견한다.

▲ 숭고와 정신

- 우리가 '~이 숭고하다'고 할 때, 대상을 숭고하다고 하는 것은
판단자의 정신이 지니는 숭고함을 대상에 투사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3교시)

◆ 숭고와 근대성

▲ 미와 숭고

미		숭고
형식, 한정	(a)	몰형식, 무한정
상상력의 유희	(b)	상상력의 엄숙한 활동
합목적적	(c)	반목적적→합목적적
대상 자체가 美	(d)	숭고를 느끼는 정신이 숭고함

▲ 칸트의 숭고 개념

(a) 몰형식적인 면보다 무한정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무한정이기 때문에 형식을 규정할 수 없다.

(b) 상상력의 엄숙한 활동을 통해 결국 감성의 무능력을 깨닫는다.
(c) 그러나 그 전체를 아우르는 자신의 정신(이성)을 발견한다.
: 반목적적인 것이 합목적적으로 전환

▲ 인간의 숭고성

- 인간 정신의 고양 정도에 따라 판가름된다.
■■--감성능력이 좌절하는 크기에 비례

▲ 근대적인 숭고

- 칸트의 입장

- 이성주의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다.
⇒ 그러므로 이성에 비해 열등한 감성이 좌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성의 좌절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이성능력이 감성능력보다 우위에 있다.
⇒ 인식능력들의 관계에 있어 합목적적

▲ 탈근대적인 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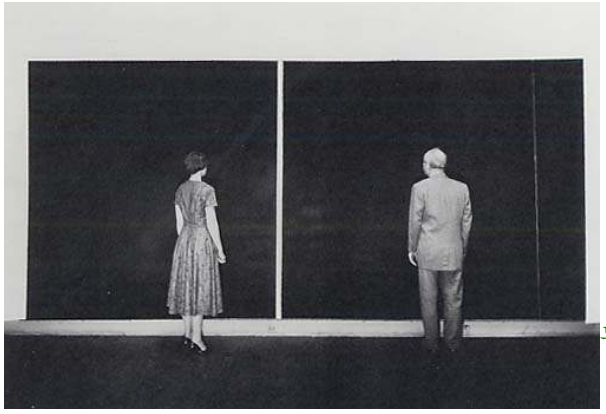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반목적적인 것이 합목적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성 우위의 입장을 거부한다.

- 탈근대적인 숭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감정정인 전치(불쾌→쾌, 공포→안도, 당혹→매력)만은 인정하는 입장.
  (2) 반복적이며 불쾌한 것의 당혹스러움이 바로 숭고이다.

예) 탈근대적인 숭고의 예
  : 바넷 뉴먼의 작품

▶ **참고자료 I**
뉴먼 [Barnett Newman, 1905~1970]


뉴먼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모습

미국의 화가.
내적인 구성을 배제한 단순한 색면(色面)과 색대(色帶)에 의한 대화면은, 직절적(直截的)인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확장하는 고요한 공간을 현출시킨다. 추상표현주의와 관계하는 한편 1960년대의 새로운 추상, 나아가서는 미니멀아트운동의 선구자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